

대행 스님

이승저승 양면을 들고 날 수 있다면 생사가 벗어집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여) 스님, 며칠 전에 집을 나와 스님을 친견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껜가는 통도사를 누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도사를 가려고 그러니 길도 모르고 해서요. 통도사 스님을 뵌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계사를 어제, 이 지도를 좀 받아서 사찰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그날따라 조계사에 통도사 스님이 어제 처음으로 오셨다 하면서 법문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 갖고요, 통도사 스님을 뵙겠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나온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착이 없어져서요, 저 같은 사람도 또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십몇 년 동안에 절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 세월이 좀 길어지니까요, 선원에서는 한번 5년 전엔가 오니까 주지 스님이 막 나무라시면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러느냐고 그래서 되돌아갔는데 자꾸 몇 년 후면 다시 또 절에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십몇 년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결심이 딱 서면서 집엘 안 들어가고 지금 근 며칠을 사찰을 찾기 위해서 이러는데 굳이 한마음선원에 꼭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섰습니다. 이랬을 때, 스님, 어떤 그거로….

큰스님 그건 주인공을, 못났든 잘났든 당신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건 자유죠. 그런데 들어가서 좋을 일 같으면 들어가시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들어가시면 좋을 건데 왜 그래요?

질문자3(여) 그게 안 됩니다. 스님.

큰스님 왜 안 돼요? 아,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한다면 그건 살면 뭘 합니까? 비중을 봐야죠. 내가 나가서 나만 편안하게 살자고 하느냐, 또는 자식들과 가족이 좀, 나로 인해서 편안하다면 내가 아무리 들어가기 싫어도 내가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나 하고 들어가고,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그 모두가 다 없어질 텐데 왜 그러세요?

당신을 이끌어 가는 거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한다면 나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끌고 다니지 않는 것이 주인공의 도리 아닌가 하고서 거기다 놓고 잡고 들어가서 그냥 산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댁이 좋아서, 이렇게 가라 한다 하고 저렇게 가고 싶다 한다고 끄달린다면 안 되죠. 그 말 안 해도 알겠죠? 들떼기요. 마음공부 하는 거는 한군데 앉아서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몸이 돌아다닌다고 공기 주머니 안에서 어떡할 거예요?

왜, 아까 또 질문한다고 왔던 사람은요? 하하하. 그 못 하면 또 속으로 짠하실 거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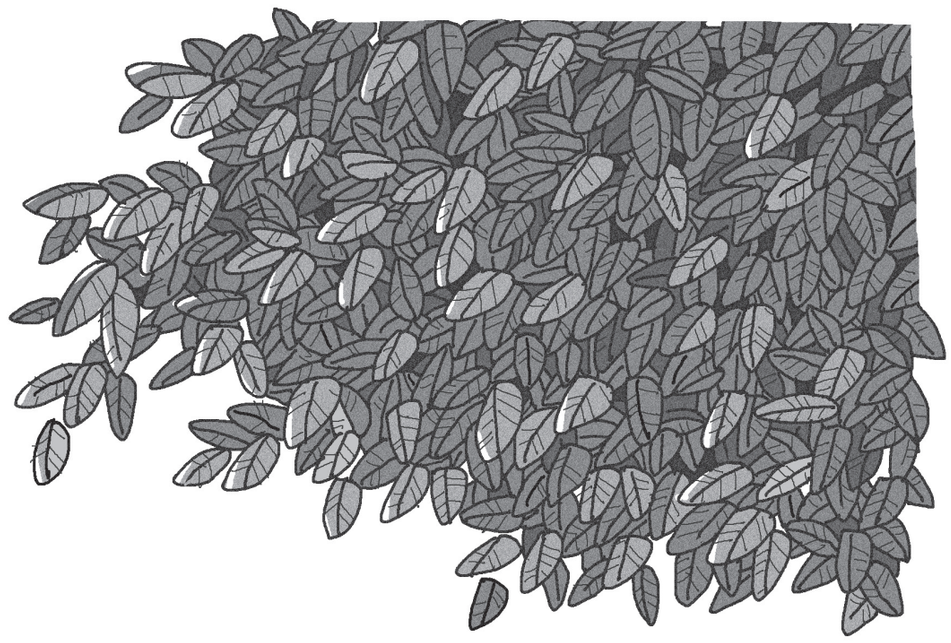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4(남) 스님, 저는 지금 선실에서 비디오 보다가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집이 진주고 큰스님 몇 번 뵈옵고 선원 다닌 지 몇 년 됩니다.

아까 누군가 살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듣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전에 한번 제가 살생에 관해서 생각을 하던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지난 8월 달에 휴가 받아서 진주에 내려갔습니다, 집이 진주니까. 내려가서 진주지원에서 사나흘을 왔다 갔다 다니다가 휴가 끝나는 날 제가 차를 몰고 진주에 장 총무님이라는 분하고 진주 시내로, 진주지원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도로로 뛰어드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속도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미 토끼가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늦었구나 싶은 생각에 토끼를 차 바퀴 그 안으로 지나치려고 그냥 그대로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그 안에서 계속 뛰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오른쪽 바퀴에 토끼가 밟혀서 물컹하는 걸 제가 느끼고 순간 '아, 밟았구나.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핸들에 머리를 박고는 한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선원에 다니면서 책 같은 걸 읽어도 '어쩔 수 없이 생물을 죽여도 주인공 네가 한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 더 좋은 몸 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글귀를 몰랐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너무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5분 동안.

옆에 장 처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차를 다시 돌려서 헤드라이트를 비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토낀데, 토끼 창자는 이쪽에 있고 껍데기는 저쪽에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깐 저것도 시첸데 치워 줘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니깐 그 내장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 처사님하고 같이 옆으로 치우고는 제 차 트렁크에 선원에서 나온 접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숲에 덮어두고는, 무덤 대신해 주고 와서 큰스님을 찾아뵙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다가 제가 순간 느낀 게 뭐냐 하면 왜 나는 선원에 다니며 주인공 공부를 한다면서, 주인공을 굳게 믿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인공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믿고 나가라고 큰스님께서 항상 가르치시는데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제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어.' 하는 믿음도 바로 나왔겠죠. 그러지 못했던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아까 그 개구리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 토끼 생각이 갑자기 나서 질문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생물을 죽이면 안 되고 생물을 죽이면 천벌을 받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저의 그런 관념을 조금이라도 깨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여러 해 다녔지만 오늘 질문이 처음입니다, 대법회에서 하는 건. 꼭 하고 싶었습니다. 큰스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 토끼가 달아나는 걸 잡으러 가서 죽인 게 아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소치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